

2020년 6월 21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롬 12:1-2)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숙한 관점을 갖도록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만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 사람이 가치를 느끼는 것

사람은 사물이나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즐겁지가 않고, 동기부여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속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감각적인 것에 더 쏠리게 하여 눈에 보이는 가치를 불필요하게 추구합니다. 사치품(브랜드), 필수품의 취향, 취미생활, 더 나아가 SNS, 게임, 중독대상들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이 결과는 삶의 피상성이며 결국 본질적 가치를 잃게 합니다. 허무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의 가치추구를 조장하지만 동시에 삶의 긍정적 가치를 찾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은총 영역에 해당합니다. V. Frankl 의 요약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에서).

첫째, 창조적 가치: 창의성을 발휘하여 개인, 공동체, 사회에 유익을 끼칠 때 느끼는 가치.

둘째, 경험적 가치: 만남과 경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 통찰력, 도덕적 함양, 관계의 열매 등.

세번째, 태도적 가치: 운명과 곤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따라 의미와 가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Frankl 은 사람이 창조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박탈당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 다닐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람은 고난과 죄와 죽음이라는 시련을 올바르게 이겨내는 의미를 성취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죄와 죽음은 두려운 삶의 정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이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극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신앙인이더라도 고난이나 죄나 죽음같은 문제에 불안과 신음을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극복하려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대가 가치관을 부여하는데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이것을 도전하게 해줄까요?

[2] 보이지 않으나 필수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악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에 대한 관심은 화려했고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많을 수록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중한 하늘의 가치를 찾고 구하는 중심이 늘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린 서아프리카 한 부족의 <하늘의 선녀>라는 전설을 기억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차원의 가치를 놓치면 보이는 사람(전설 속의 아내)도 잃고 결국 내게 주어진 어떤 좋은 것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으로 고난을 이기고, 죄를 안 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예고 없이 닥치는 고난과 죄와 죽음은 그것을 당하는 삶 속에 부여된 하늘의 가치를 찾고 누릴 때 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가치를 나의 중심에 소유하려면 세상 가르침과 다른 종교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하나를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 창조주 아버지께 함께 나아갑니다(엡 2:18, 벡전 3:18).

우리는 예수님이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분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얼마나 하늘의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는 존재인지, 세상은 얼마나 하늘 사랑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피조물인지,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얼마나 하늘 유업의 축복을 가득 담고 있는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맺음>

성경의 사상은 모든 땅 위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품고 있으며 온전한 의미로 변화시켜 줌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족, 교회, 직장, 사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 가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면 그것은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늘의 본연의 가치를 품은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죄를 지어도, 죽음이 주장하여도 허망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가 넘치는 삶의 유업이 삶 속에 부요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나는 하늘의 가치를 찾고 누림으로 기쁨의 힘을 얻고 있습니까?
2. 세상에서 찾게 하는 가치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늘의 가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발견한 가족의 가치는 무엇입니까?